

# 考古學的 側面

鄭 永 和\*

## I. 序 言

韓半島 最南端에 위치하고 있는 濟州島는 주로 熔岩과 玄武岩 등 火山岩으로 形成된 우리나라 最大의 섬이다. 經度上으로는 東經 126°10' 에서 126° 58' 사이, 緯度上으로는 北緯 33° 12' 에서 33° 34'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높이가 1950 m인 漢拏山을 中心으로 濟州도는 東西의 길이가 약 80km, 南北의 길이가 약 40km를 이루는 타원형의 섬으로 주위 둘레가 약 254 km, 전체 면적은 약 1,891 km<sup>2</sup>가 된다.

濟州도에서 北쪽으로 全羅南道 木浦까지의 거리는 88해리, 東北쪽인 釜山과 日本의 對馬島까지의 거리는 170해리이다. 또 緯度上으로 볼 때 日本의 九州地方과는 거의 같은 위치이고 西쪽의 中國 上海보다는 약간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濟州島는 地理的으로 韓半島와 大陸, 日本의 섬과 來往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찌기 先史時代부터 文化的인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 나라 陸地로부터는 거의 모든 文化가 濟州島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간혹 中國과의 交易도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 몇가지 遺物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濟州島에서 考古學的인 資料가 처음 出土된 것은 1928년 8월말 山地港 築港工事 때이며 이때 採石場에서 우연히 露出된 熔岩洞窟內에서 漢式銅鏡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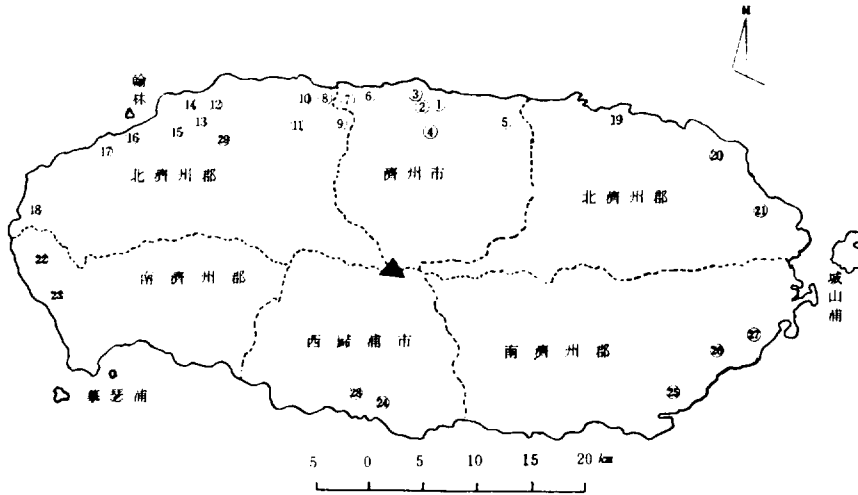
\*嶺南大學校 教授

貨泉 2 개, 五銖錢 4 개, 大泉 52 개, 貨布 1 개와 土器, 石斧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金元龍; 1973:111. 文基善; 1973:126). 특히 貨泉, 貨布, 大泉 등은 王莽時代(A.D. 8~25)에 사용하던 것으로 年代와 交易의 증거로 매우 중요한 資料이다. 그후로는 공백기를 지나 金哲俊教授(1959)에 의해 처음으로 濟州島의 支石墓가 報告된 바 있고 이어서 宋錫範(1964, 1966, 1973, 1979), 崔夢龍(1967), 任孝宰, Pearson(1970), 文基善教授(1973) 등에 의해서도 支石墓와 無文土器 遺蹟이 調査報告된 바 있다. 筆者는 1973년에 濟州島 빌레못 洞窟을 발굴하였고 1975년부터 3년 동안은 濟州島 일원에 걸쳐 地表調査를 실시하여 새로운 유적을 더 찾아 내었다(鄭永和; 1974:151-6, 1977). 夫宗休氏(1973)도 빌레못동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金元龍教授(1976)는 濟州島의 先史文化와 住民에 대해 일단 整理하였고 1979년 12월에는 濟州大學博物館에서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의 貝塚을 發掘하였다(李白圭; 1979).

이상과 같이 濟州島의 考古學的 研究는 대부분이 地表調査를 한 結果이고 發掘이 실시된 곳은 빌레못동굴과 곽지貝塚뿐이다. 따라서 濟州島의 考古學的 研究의 現況을 파악하고 장차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概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곳에서의 考古學的 研究는 先史時代에 속하는 遺蹟 遺物만을 對象으로 하며 歷史時代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 II. 調査 遺蹟 遺物の 概觀

지금까지 濟州島에서 地表調査된 先史時代의 유적과 유물은 물론 發掘調査된 것까지 포함하여 舊石器時代부터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까지 시대별로 區分한 다음 이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         |         |         |         |         |
|---------|---------|---------|---------|---------|
| 〈濟州市〉   | 〈北濟州郡〉  | 14. 歸德里 | 〈南濟州郡〉  | 〈西歸浦市〉  |
| 1. 一徒洞  | 8. 下貫里  | 15. 上大里 | 22. 武陵里 | 24. 西歸洞 |
| 2. 二徒一洞 | 9. 光令里  | 16. 狹才里 | 23. 日果里 | 28. 天池淵 |
| 3. 龍潭洞  | 10. 貴日里 | 17. 月令里 | 25. 新川里 |         |
| 4. 吾羅洞  | 11. 水山里 | 18. 高山里 | 26. 蘭山里 |         |
| 5. 三陽洞  | 12. 郭支里 | 19. 北村里 | 27. 溫平里 |         |
| 6. 外都洞  | 13. 錦城里 | 20. 月汀里 |         |         |
| 7. 內都洞  | 29. 於音里 | 21. 細花里 |         |         |

〈圖 1〉 濟州島 遺蹟 遺物 分布圖

## 1. 舊石器時代

### 1) 빌레못洞窟

#### (1) 遺蹟 遺物の 發見 및 調査經緯

제주도의 빌레못洞窟은 舊石器時代의 洞窟遺蹟으로 南韓地域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동굴 유적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動物化石들은 舊石器時代 編年과 당시의 生活狀 등을 研究하는 데 매우 貴重한 資料들이다. 濟州島 빌레못동굴이

調査된 것은 1971 년으로 제주도 山岳會의 夫宗休氏와 다른 會員 몇명이 함께 빌레못동굴의 構造, 크기, 內部 棲息生物 등을 學術的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그후 1973 년 3 월 빌레못동굴을 再調査할 때 사슴과 갈색곰(Brown bear)의 턱뼈, 관절뼈 등의 化石이 濟州大學의 朴行信教授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를 계기로 文化財管理局에서는 빌레못동굴에 대한 地質 및 考古學的인 綜合調査를 각 分野의 專門家에게 위촉, 豫備調査를 同年 5 월에 실시하였다. 이 예비 조사에는 서울大 金元龍, 金鳳均教授, 文化財管理局의 專門委員인 裒錫奎氏와 筆者가 참가하였으며 考古學的인 측면에서 얻은 成果는 至大하였다. 즉 처음에는 動物의 化石만 出土되는 洞窟로 생각하였으나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朴教授의 採集遺物을 검토한 결과, 사슴의 관절뼈에 石器로 人工이 가해진 흔적을 발견하여 빌레못동굴은 人類가 오래전으로부터 생활했던 곳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洞窟內部를 정밀조사한 결과 사슴, 갈색곰(Brown bear) 등의 化石 외에도 熔岩(lava)으로 된 剝片石器, 骨器, 불을 땀 흔적인 木炭도 발견되어 이 동굴에 先史人이 오래전에 살았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發見된 갈색곰이 보여주는 相對年代와 剝片石器, 骨器 등이 製作技術面에서 나타내주는 年代를 근거로 빌레못동굴 유적이 中期舊石器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上限 6~7 萬年前, 下限은 3 만 5 천년 전 정도). 이렇게 豫備調査에서는 빌레못동굴이 中期舊石器에 속하는 洞窟遺蹟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 귀중한 化石자료와 考古學資料들이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洪積世 동안에 우리나라 陸地와 連陸되었다는 說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Eli sseeff; 1968).

#### (2) 遺蹟의 地理的 狀況

빌레못동굴은 제주시에서 西쪽으로 50 km 가량 떨어져 있는 北濟州郡 涯月邑 於音 2 리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市에서 1 시간 반이면 현지에 도착할 수 있다. '빌레'라는 제주도 말은 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빌레못 洞窟入口 근처에는 바위로 된 연못 大小 2 개가 있다. 제주도 全體가 그렇듯

이 地表面은 玄武岩으로 덮여 있으며 風化作用을 덜 받은 곳은 岩盤이 露出되어 길바닥 여러곳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風化時 떨어져 나온 石片이 到處에 흩어져 있어 濟州島民들은 이를 이용하여 밭과 밭 사이에 얇은 담을 쌓아 穀物을 家畜의 被害로부터 지키고 있다.

遺蹟이 位置해 있는 곳은 緩傾斜를 이루고 있어서 西北쪽으로 향해 바닷가까지는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유적의 주위환경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雜草들이 무성하며 소나무와 闊葉樹 등도 野山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先史時代에도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많은 野生動物들이 살았을 것으로 推定된다. 於音2 里에서 현재의 빌레못동굴 入口까지는 거리가 약 1.2km 가량 되고 다시 이곳에서 遺蹟址까지는 약 900m 정도 동굴안으로 가야 된다. 빌레못동굴은 火山이 폭발한 후 용암이 흘러 地表面에서 굳기 始作할 때 内部의 덜 굳은 部分이 경사면에 따라 서서히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一種의 터널식 동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2層, 3層의 構造를 보이고 있다(한국동굴협회, 1971:39). 洞窟의 内部는 天頂이 굳데굳데 함몰되어 돌무더기가 通路를 막을 정도로 쌓여 있는 곳이 많으며 石灰岩동굴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되나 靑灰色의 작은 鍾乳石이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동굴바닥은 용암이 흐른 자국이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步行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面이 거칠다. 유물이 出土되는 곳으로 가려면 다시 2層 窟로 통하는 길로 사다리를 타고 가야 할 만큼 험하다. 그런데 이러한 洞窟内部 상태로 보아 先史人들이 現在의 窟入口로 드나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까닭은 유물이 出土되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현재 入口로부터 멀고 또 실제로 사냥을 하여 잡은 짐승들을 그렇게 멀리 굴속으로 운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史人들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옛날 굴 入口로 이 동굴을 出入한 것이 分명한데 이는 동굴예비조사 때 옛날 舊入口로 보이는 곳에 불똥 흔적을 보았고 굴입구가 무너질 때 막힌 큰 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 (3) 發掘

빌레못동굴의 發掘은 먼저 밖에서 동굴의 옛날 入口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며 발굴하기로 하고 測量부터 시작하였다. 동굴의 舊入口를 찾기 위해 현재의

入口에서 유물 出土지점까지 동굴내부에서 측량을 시작하였으며 그때그때 基點을 설치하고 방위각을 잴 다음 각 기점간의 거리를 재 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地上에서도 똑 같이 밟았으나 정확하게 굴入口를 찾지는 못하였다. 결국 Trench I (길이 15 m, 폭 2 m, 깊이 8 m)과 II (길이 10 m, 폭 2 m, 깊이 1 m)를 설치하여 掘入口 찾기 작업을 하였으나 약간의 오차로 굴속에서 밖의 작업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리까지 접근하고도 작업량과 安全問題上 포기하고 현재의 入口로 매일 出入하면서 發掘을 시작하였다.

발굴은 먼저 동굴내부를 측량하여 遺蹟의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發掘區間을 설정하여 유적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部分에 Trench와 Test pit를 넣었다. 동굴은 넓은 廣場의 形態며 長軸이 18 m, 短軸이 15 m의 不完全한 타원형으로 平面圖가 그려진다. 여기에 설치된 Trench A는 南北방향으로 길이 11.3 m 폭 2 m로 동굴의 中心部를 지나게 하였고 Trench B는 東西방향으로 길이 12 m 폭 1 m로 유적의 성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部分에다 설치하였다. 발굴을 통해 밝혀진 遺蹟의 層位는 다음과 같다(地表로부터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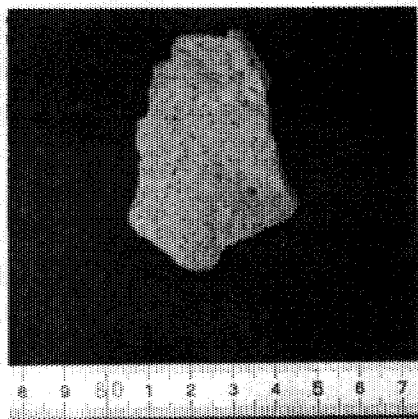
1. 半徑이 30 cm 정도 되는 현무암 덩어리들이 깔려 있는 層으로 두께가 30~50 cm 가량이다. 밑 부분에는 작은 돌 등이 많이 보인다.
2. 第 1 文化層으로 층의 윗부분에는 動物化石들이 발견되며 打製石器도 出土된다. 두께는 2~95 cm의 변화를 보이며 고운 진흙과 잔돌, 때로는 직경이 20cm가 넘는 큰 돌도 섞여 있는 층이다.
3. 第 2 文化層으로 직경 10 cm 미만의 잔돌과 고운 진흙으로 形成되어 있으며 上層의 압력으로 비교적 단단한 상태이다. 이 층에서는 打製石器만 出土되며 바닥부분은 동굴의 岩盤과 접촉되어 있다.

#### (4)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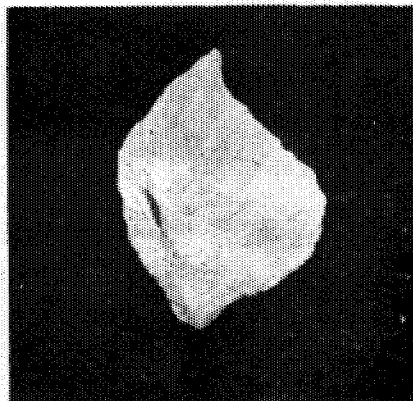
##### 가. 石 器

모두 84 점의 유물이 수집되었으며 주로 剝片석기들로 構成되어 있다. 종류별로는 ① 굽개(25개) ② 돌칼(11개) ③ 첨기(1개) ④ 홈날(4개) ⑤ 톱니날(1개) ⑥ 송곳(1개) ⑦ 부리형석기(1개) ⑧ 찍개(1개) ⑨ 박편도끼(4개) 등이며 그밖

에 박편 32개, 돌날 1개, 돌확 1개가 더 分類되었다. 이 중에서 굽개, 돌칼, 흙날, 톱니날 등은 석기제작기술상 구석기 중기를 代表하는 것들이다(Bordes;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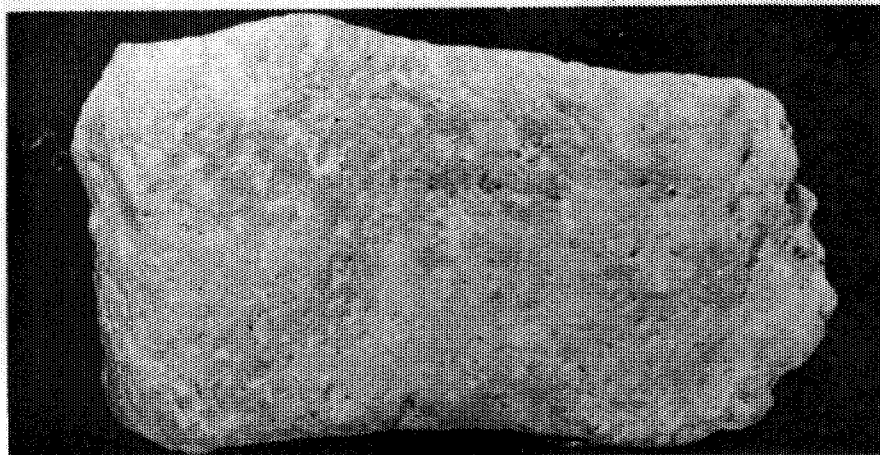
〈圖 2〉 굽 개



〈圖 3〉 부리형 석기

나. 線刻石片

Trench A의 發掘坑 E7에서 出土되었으며 제 2층의 깊이 25cm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線刻石片의 길이는 15cm, 폭은 8.5cm 두께는 6.5cm가 되며



〈圖 4〉 線刻石片

날카로운 剝片 끝 같은 것으로 玄武岩片에 陰刻한 것이다. 線으로 음각한 形態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動物(사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動物化石

濟州島 빌레못洞窟이 舊石器時代에 속하는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것도 이곳에서 발견된 動物化石들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들 化石 自體가 보여주는 相對年代와 석기들로 빌레못동굴을 우선 編年한 만큼 이 動物化石들은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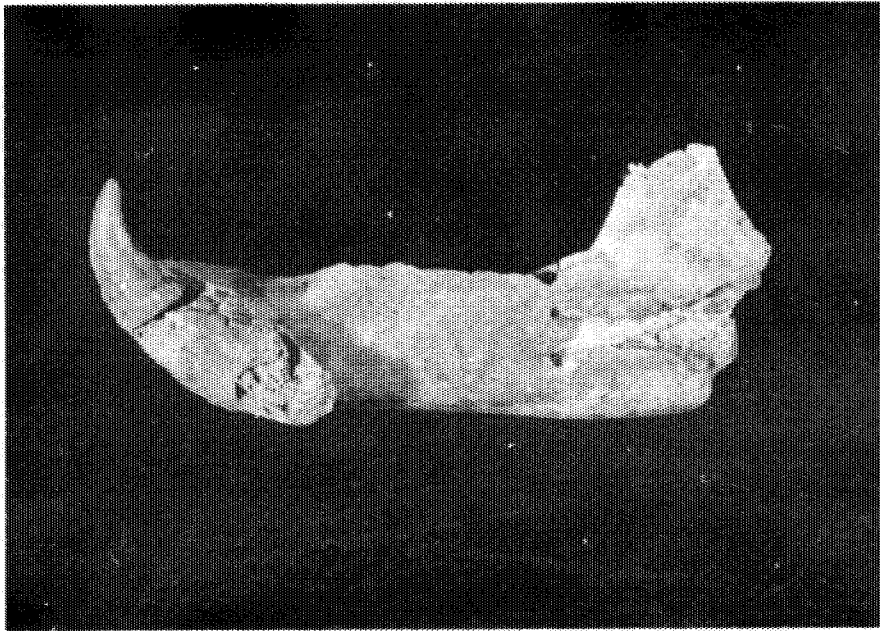
##### ① Brown bear (*Ursus arctos*)

이 化石은 돌이 갈려 있는 부분과 제 2층의 윗부분에서 齒牙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또 이 化石이 보여주는 相對的 年代는 韓半島에서는 적어도 50만 년 내지 1만 년 전의 年代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갈색곰은 中國의 周口店에서 中期洪積世에 해당하는 Mindel II기의 지층에서 出土된 적이 있으며 Asia를 기반으로 빙하기에 많이 번식했던 동물이다 (Bonifay, 1966). 韓半島에



〈圖 5〉 갈색곰의 뒷머리뼈





〈圖 6〉 갈색곰의 아래턱뼈

서는 氷河期가 끝날 무렵에 멸종되거나 아니면 그 대부분이 蒙古地方 또는 Alaska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化石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② 赤鹿 (Red deer, *Cervus elaphus*)

이 化石은 第3紀末부터 4紀初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後期洪積世에 번성하던 동물이다. Asia에서는 中國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存在하던 동물로 갈색곰과 함께 出土된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Bouchud, 1966). 더우기 關節 (tibia) 부분에 石刀 등으로 人工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당시의 先史人들이 이 동물을 사냥하여 食糧으로 利用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③ 노루 (Roe deer, *Cervus capreolus*)

Brown bear, Red deer 등과 함께 出土되는 化石으로 당시의 수렵생활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증거물이다 (Bouchud; 1966: 253-257, Kurtén; 1968: 166).

④ 기타 동물화석

動物의 種을 가려내기 힘든 부분의 化石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이 關節의 특

정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 라. 木 炭

빌레못동굴의 옛날 入口로 판단되는 곳에서 多量の 숯이 발견되었는데 제 2층의 表面 아니면 지표하 5cm 정도에서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미 공기에 많이 오염되어 C<sub>14</sub> dating에는 크게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나 이 숯 자체가 당시 先史人들이 굴속에서 生活한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빌레못동굴을 발굴하여 몇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우리 나라 最南端인 濟州島에서도 중기구석기시대의 것으로 推定되는 舊石器時代의 洞窟유적이 발견되어 韓半島에서는 北은 威境南北道로부터 南은 濟州島까지 全國에 걸쳐 舊石器遺蹟이 발견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갈색곰 등의 化石은 일찌기 제주도 洪積世기간중 陸地와 連陸되어 있었는데 氷河期가 끝나고 後氷期로 들어감에 따라 海水面의 상승으로 한반도와 제주도가 분리되고 현재의 海안선을 形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間接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셋째, 빌레못동굴 유적은 남한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動物化石을 동반하는 구석기 유적으로 당시 先史人들의 生活相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2) 天池淵遺蹟

### (1) 遺蹟 遺物의 發見 및 調査經緯

1975년 8월 筆者는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學年 學生들과 함께 졸업 답사를 위해 濟州道에서 地表調査를 하던 중 南濟州郡 西歸浦에 있는 天池淵폭포 근처에서 처음으로 玄武岩으로 된 典型的인 긁개(Scraper, Racloir) 1개, 돌날(Blade, Lame) 3개, 剝片 2개, 그리고 작은 박편에 만들어진 홈날석기(Encoche, Notch) 1개 등 모두 7點을 發見하였다. 한편 1973년 8월 濟州道 北濟州郡 涯月邑에 있는 빌레못洞窟을 發掘한 바 있는 필자는 더욱 確信을 갖고 調査를 계속하여 1976년 4월 말과 1977년 8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尖器 1개, 돌날 4개, 박편 4개 등을 地表採集하였다. 이 중에

尖器는 土地 소유자가 遺蹟址의 땅을 고르다가 地表下 20 cm 깊이에서 發見한 뒤 이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筆者가 이를 尖器로 確認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78년 11월 중순과 1979년 4월 중순에 天池淵遺蹟을 再踏査하여 發掘을 除外한 遺蹟의 地理 및 地質學的 調查와 地表調查를 綜合的으로 實施하였다.

## (2) 遺蹟의 地理的 狀況

天池淵遺蹟이 位置하고 있는 곳은 南濟州郡 西歸市 天池洞이며 천지연폭포가 있는 곳에서 南쪽으로 100 m가량 떨어진 곳이다. 地圖(1711-Ⅳ 서귀) 위에 나타난 遺蹟의 位置는 東經 126° 33' 29", 北緯 33° 44' 31" 이고 해발 15 m에 해당한다. 서귀시에 있는 南濟州郡 郡廳으로부터 西쪽으로 700 m가량 가면 遺蹟現場에 도착하는데 유적에 도착하기 전 약 150 m되는 곳에 第4紀에 形成된 堆積層이 보인다. 본래 천지연폭포로 흐르는 물은 솟발내라고 하는 常時川에서 흘러내리는 물로서 1년 내내 흐르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는 生活水로서 활용가치가 큰 것이다. 따라서 先史人들이 天池淵폭포 근처를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立地的 條件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天池淵폭포가 있는 곳에서 南쪽으로 약 500 m 되는 거리까지는 天惠의 계곡을 이루고 있는데 南쪽으로 향한 절벽 밑은 소위 Rock Shelter (Sonneville-Bordes; 1967) (바위 은거지)와 같은 좋은 生活住居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곳은 여름에 태풍이 불어도 充分히 庇할 수 있고 겨울에도 안온하게 지낼 수 있게 바위은거지가 形成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민물이 항상 흘러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漁撈 등 경제생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天池淵一帶는 先史人들의 生活에 적합한 입지적 조건이 되어 있어서 舊石器 遺蹟이 이곳에서 發見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것은 發掘을 해야 알겠지만 地表調查를 통해서 遺物이 發見된 범위를 보면 東西의 길이가 4 m, 南北은 10 m가량이 된다. 그밖에 天池淵遺蹟에서 솟발내를 따라 올라가면 주위에는 얇은 丘陵과 넓은 지역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地理的 條件들은 先史人들이 이곳에서 들짐승을 사냥하는 데에도 큰 도움

을 주었으리라고 믿어진다.

### (3) 遺蹟의 地質學的 背景

濟州道の 火山基盤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花崗岩類로서 別刀峰 西北 海岸上에 노출되어 있는 花崗岩礫을 그 증거로 들 수 있으며 西歸浦層도 一種의 火山基底로 간주되고 있다. 제주도의 火山活動은 第3紀末에 始作되어 粗面岩類를 분출하고 그 다음 西歸浦層의 堆積期를 거쳐 第4紀에는 粗面質安山岩類를 분출한 다음 경제기를 지나 끝으로 玄武岩類의 大溫流가 있었다(禹樂基;1965: 51). 그리고 玄武岩의 活動은 歷史時代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암의 분출장소는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 發見되고 있다.

熔岩의 噴出 순서는 일반적으로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移化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濟州道の 岩石層을 考察해 보면 먼저 水成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含花崗岩 및 火山岩屑層이 있고 그 다음 西歸浦層과 火山灰層이 포함된다. 특히 西歸浦層은 서귀포에서 西쪽 海岸線에 發達해 있는 海岸절벽에 形成되어 있는데 높이가 60 m 가량 되고 그 下半部에 水成層이 뚜렷하게 露出되어 있다. 이 層은 대략 水平으로 되어 있지만 東西로 완만한 傾斜를 보여주면서 여러 곳에 斷層이 發達해 있고 上部는 粗面質安山岩類로 덮여져 있다. 한편 西歸浦層에 介化砂層이 3개나 들어 있으며 이들은 대략 上部鮮新世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該層 속에는 둥글둥글하게 닳은 圓礫이 있는데 이는 위에 덮인 熔岩의 분출시기와 상당한 時間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는 火山活動이 오랫동안 정지해 있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西歸浦層의 層序는 위로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禹基樂;1965:54).

1. 粗面質安山岩層	두께	25 m
2. 集塊岩層	"	7 m
3. 砂層	"	6 m
4. 粘土層	}	3 m
5. 海膽·珊瑚層		
6. 介化砂層		

7. 砂	層	//	10 m
8. 介 化 砂	層	//	1 m
9. 砂	層	//	5 m
— 海水面 —			
10. 介 化 砂	層		

濟州道の 火山岩을 分類하면 첫째로 粗面岩類가 있는데 여기에는 漢拏山熔岩, 御乘生岳熔岩, 城板岳熔岩, 森島熔岩 등이 代表的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粗面質安山岩으로 山房山熔岩, 角秀岩熔岩, 御乘生岳熔岩, 舍角閃石粗面質安山岩, 西歸浦熔岩 등이 포함된다. 특히 西歸浦熔岩은 서귀포 층을 직접 덮고 있는 岩石으로 서귀포 근처에서 江汀里 및 海安里 一帶까지 노출되어 있다. 용암의 분출 中心은 확실하지 않지만 높은 곳에서 噴出하여 南北 양쪽으로 흐른 것이 점점 확대된 것 같다. 세째는 玄武岩類가 있으며 이중에 알칼리玄武岩, 濟州玄武岩, 長石玄武岩, 第 1, 第 2 輝石玄武岩, 非玄晶質玄武岩, 漢拏山玄武岩, 水基洞玄武岩, 軍山玄武岩 등이 代表로 發見되고 있다. 天池淵遺蹟으로부터 南쪽으로 약 150 m 떨어진 장소에서 第 4 紀 堆積層이 發見되었는데 이것은 海水面이 現在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 堆積된 것이다. 이 層은 주로 모래로 形成되어 있는데 약간의 粘土成分이 섞여 굳어져 있는 상태이며 두께는 약 2 m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調査에서는 이 層에서 人工遺物 같은 것이 하나도 發見되지 않았고 貝類化石 같은 自然遺物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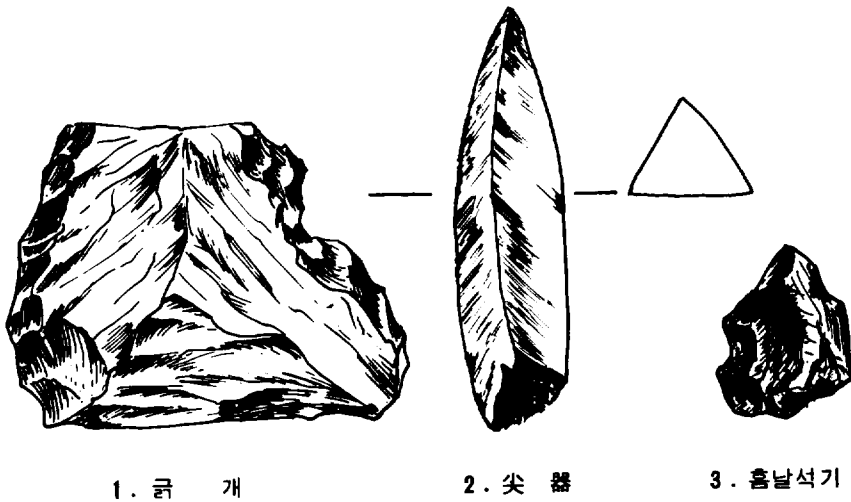
(4) 遺物의 層位學的 位置

天池淵遺蹟에서 발견된 後期舊石器 중에서 尖器 1개만이 in situ (Whitten and Brooks;1972:242) 狀態에서 發見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地表에서 수집되었다. 天池淵遺蹟도 丹峴里遺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밀발굴을 통해서만이 石器의 層位關係가 명확해지리라 믿고 있으며 in situ 狀態로 發見된 尖器 하나는 地表上 20 cm 되는 層 속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層位가 확실하다고 하겠다. 遺蹟의 地表에는 南쪽으로 향한 암벽에서 풍화되어 떨어진 얇은 玄武岩石片들이 흩어져 있고 褐色의 土層 속에도 石片들이 섞여 있다. 遺物이 주

로 發見되는 장소의 암벽은 심한 風化作用으로 움푹 패여 있는 것이 特徵이며 地表에는 石器들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發見된 尖器 하나도 발굴을 통해서 수집된 것이 아니고 땅을 파다 우연히 發見된 것으로 地表下 20 cm 되는 褐色土層과 玄武岩石片이 섞인 層에서 수집되었다. 遺蹟層의 전체의 두께는 암반까지 精밀조사를 해야 精確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現在로서는 遺蹟의 地表에서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의 깊이를 고려하여 대략 1.5 m 내외가 된다고 보겠다.

#### (5) 石 器

天池淵遺蹟에서 發見된 舊石器의 種類는 3 가지로, 典型的인 긁개(Scraper, Racloir) 1 점, 尖器(Point) 1 점, 홈날석기(Encoche, Notch) 1 점이 있고 그 밖에 典型的인 돌날 8 점, 剝片 6 점 등이 發見되어 石器의 特徵과 함께 天池淵遺蹟에서 발견된 舊石器遺物이 舊石器後期에 屬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 後期舊石器에 대한 石器의 紋述의 比較研究는 다음과 같다.



〈圖 7〉 천지연 석기

## 가. &lt;긁개&gt; (Racloir, Scraper) (圖 7의 1)

긁개의 石材로 使用한 돌은 玄武岩이며 본래의 색깔은 靑灰色으로 나타나 있지만 石器表面에 녹(Patina)이 나 있어서 현재는 갈색으로 보인다. 石質은 치밀하고 단단한 편이다. 긁개로 만들기 전에 剝片을 미리 준비하였는데 剝片의 앞부분(Partie Proximale)과 끝부분(Partie distale)은 현재 부러진 狀態로 있고 剝片의 軸과 石器의 軸(Bordes; 1961:6)이 일치하고 있다. 21가지로 分類되는 긁개 중에(Bordes; 1961:25~30) 볼록 양날긁개(Racloir double biconvexe)에 해당하는 典型的인 type이다. 양쪽 볼록날의 길이는 각각 왼쪽의 것이 4.5 cm, 오른쪽의 것이 4.4 cm로 거의 같은 길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왼쪽날은 石器의 軸과 거의 平行을 이루고 오른쪽날은 石器의 軸과 垂直을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 石器의 最大의 길이는 4.52 cm, 폭은 5.80 cm, 두께는 1.23 cm로서 손에 쥐고 使用하기에 적당한 크기라 하겠다.

긁개의 양쪽 볼록날을 만드는 데 使用된 다듬기(Bordes; 1961:8~10)는 아닌데 이는 Flint를 石材로 使用하지 않고 玄武岩을 石材로 使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본래 가파른 다듬기(Retouch abrupte)나 덜 가파른 다듬기는 後期舊石器時代에 石器의 등(dos)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技術이며 石材의 特性에 따라서 의도와는 달리 덜 가파른 다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긁개 자체는 일찌기 아슐리안 전기부터 시작해서 新石器時代까지 使用되던 一種의 古形石器(Chung; 1972:7~16)인데 주로 舊石器 中期에 많이 쓰였고 舊石器 後期에도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므로 天池淵遺蹟에서 발견된 긁개도 다른 유물의 特性과 綜合해 보면 충분히 後期舊石器時代에 속할 수 있다고 하겠다. 石器의 양쪽날에는 뚜렷한 使用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나. 침기(尖器, Point) (圖 7의 2)

天池淵遺蹟에서 發見된 尖器 1점도 玄武岩으로 만들었으며 石器表面에는 赤褐色의 녹(Patina)이 껴서 古色이 뚜렷하다. 石器의 測定價는 最大의 길이가 6.74 cm, 폭이 1.78 cm, 두께가 1.96 cm로 나타나는데 槍끝으로 使用하기보다는 화살촉으로 使用하는 데에 알맞은 크기이다. 尖器의 斷面은 삼각형이며 이 石器의 製作技術은 여러 尖器(Bordes; 1961:21~23, 鄭永和; 1978:127~130)와

다른 점이 있다. 즉 尖器의 등 또는 윗부분은 自然的인 剝離面으로 形成되어 兩面을 이루고 있고 尖器의 아랫부분은 이 石器의 유일한 剝離面으로 第3面을 이루고 있다. 우선 形態學的으로 보아도 尖器의 斷面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드물다. 尖器를 만들 때는 돌날 혹은 剝片에 다듬기를 가하여 뾰족한 部分을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Bordes; 1961:22) 여기서도 간단하게 石材에 兩面을 이루고 있는 한모퉁이를 선택하여 한번 打擊을 가함으로써 떨어져 나온 一種의 돌날의 尖器形態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尖器製作方法是 아주 희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天池淵尖器라고 일단 命名해 두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尖器의 使用은 前期舊石器時代에도 있었을 것이나 주로 前期舊石器時代에 發達하였고 後期로 들어가서는 細分化되어 여러 形態의 尖器가 出現한다 (Brézillon; 1969:195). 天池淵尖器도 같이 發見된 돌날 등과 함께 後期舊石器의 特徵을 보여준다 하겠다.

#### 다. 홈날석기 (Encoche, Notch) (圖7의 3)

石材는 역시 玄武岩을 使用하였으며 홈날석기의 윗부분은 아랫부분보다 녹이 덜 나서 灰色을 띠고 있으나 아랫부분은 옅은 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石器의 윗부분은 發見 당시 없어진 채 있었기 때문에 녹이 덜 낀 걸로 생각된다. 石器의 測定價는 最大의 길이가 2.34 cm, 폭이 1.60 cm, 두께가 0.43 cm로 작은 形態의 石器이다. 홈날석기는 작은 剝片에 만들어졌는데 剝片의 軸과 石器의 軸은 90°를 이루고 있으며 홈날 자체는 石器의 왼쪽에 만들어졌다. 홈날을 만들 때 나타난 다듬기의 種類는 보통 다듬기 중에 제 1 type (Chung; 1972:32) 에 속하며 이것은 박편을 사용할 때 생긴 다듬기인지 일부러 홈날을 만들 때 생긴 다듬기인지 區別하기 힘들다.

홈날을 使用하기 시작한 것은 前期舊石器時代부터인데 이때 代表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클락토니안 홈날 (Skipp; 1967:11~12, Clactonian Notch, Encoche Clactonienne) 이다. 그후 舊石器 中期, 後期에도 계속 사용된 石器로서 특히 後期舊石器時代에는 작은 박편이나 돌날 혹은 細形돌날 등에 만든 것이 독특하다. 天池淵에서 發見된 홈날석기는 形態學的 特徵을 포함하여 함께 發見된 돌날 등의 特性과 綜合해 보면 충분히 後期舊石器時代에 속하는 石器라 하겠다.



한편 石器의 끝부분에는 細形조각칼 타격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細形조각칼과 함께 만들어진 複合石器로 판단되기 쉽다. 그런데 細形조각칼타격으로 보이는 部分은 실제로 剝片의 一部分이 부러지면서 생긴 흔적이다.

#### 라. 돌날 및 박편

石器에 속하는 遺物은 아니지만 典型的인 돌날(Blade)과 剝片이 위에 說明한 石器들과 함께 天池淵유적에서 發見되어 學術적으로 重要な 資料로 평가된다. 특히 돌날의 경우 間接打擊法(Bordes;1947:18)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뚜렷하며 形態도 典型的이다. 돌날은 모두 8개가 수집되었는데 부러진 1개를 제외하고는 크기가 제일 큰 것이 5.76cm이고 제일 작은 것이 2.53cm로서 나머지는 이 사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8개의 돌날 중 使用흔적(Trace d'utilisation)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역시 石材는 玄武岩으로 되어 있고 돌날의 表面에는 갈색의 녹(Patina)이 조금씩 끼어 있다. 박편은 모두 6점이 地表採集되었는데 제일 큰 것은 길이가 5.80cm, 폭이 3.18cm, 두께가 0.85cm이고 제일 작은 것은 길이가 2.39cm, 폭이 1.98cm, 두께가 0.72cm에 해당된다.

#### (6) 遺物의 編年 및 文化內容

天池淵遺蹟에서 發見된 典型的인 鉞개 1점, 尖器 1점, 흙날석기 1점 등은 충분히 後期舊石器에 속할 수 있는 形態學的 特徵을 갖고 있는 石器라는 것이 지금까지 說明되어 왔다. 특히 이들 石器와 함께 發見된 典型的인 돌날과 박편들은 더욱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귀중한 資料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遺物의 性格으로 보아 丹峴里遺蹟보다 조금 앞서는 즉, 後期舊石器 중에서도 中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西歐의 쏘루뜨레앵(Bordes; 1968:158~161. Solutréen) 문화와 同一한 문화가 天池淵遺蹟에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 具體的인 文化의 內容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遺蹟의 發掘調査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天池淵尖器와 같은 독특한 石器를 포함하고 있는 後期舊石器時代의 中期쯤에 해당하는 문화가 天池淵遺蹟에 存在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新石器時代

현재까지 濟州島에서 뚜렷한 新石器時代의 遺蹟과 遺物이 발견 보고된 것은 없다. 다만 1967년 淸羅里에서 櫛文土器片이 採集되었으나 破片이어서 확신을 주는 遺物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金宗業 外;1983:294). 그러나 단 1片的 櫛文土器라도 발견된 것이 확실하다면 外部에서 갖고 오지 않은 이상 그것은 濟州島의 新石器유적이 存在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현재 濟州島에서 先史文化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신석기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다만 이 시대의 유적이 깊이 묻혀 있거나 海水下面에 있어서 발견이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 3.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

여기서 靑銅器時代라 함은 靑銅器가 본격적으로 發見되어서가 아니고 陸地의 靑銅器時代와 관련된 유물 즉, 土器支石墓 등이 出土되기 때문에 本土와의 時代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아직도 濟州島의 고고학적 연구는 시작단계라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靑銅遺物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본다. 本土의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文化 段階에 濟州島에서는 無文土器와 支石墓들이 存在한 것으로 보이는데 具體적인 것은 本格的인 發掘調査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濟州島에서 많이 발견되고 언급된 支石墓, 無文土器遺蹟 및 遺物에 대해 概觀하기로 한다.

### 1)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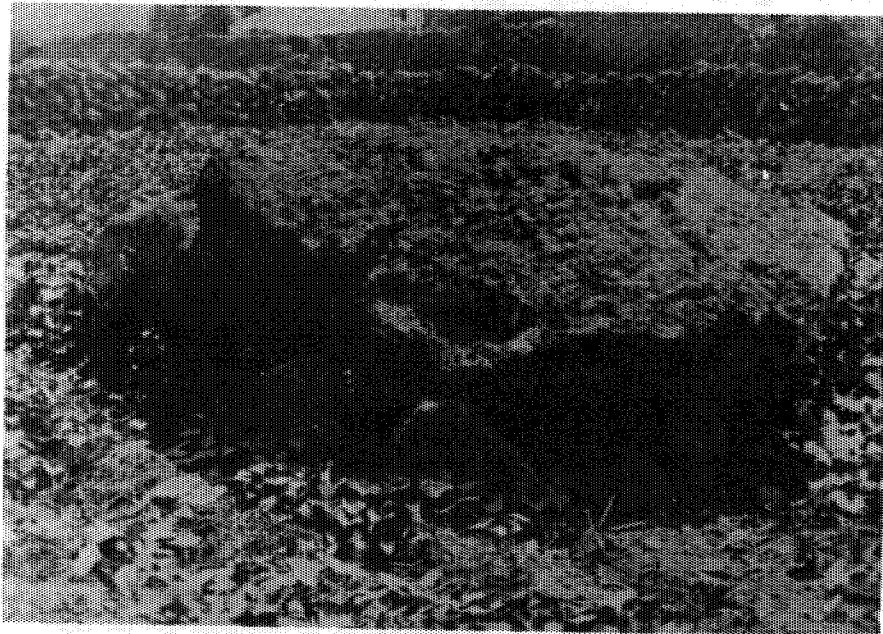
濟州島에서 처음으로 調査報告된 것이 支石墓이며(金哲俊;1959) 이후 계속해서 支石墓의 새로운 발견과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濟州島에서 발견되는 支石墓의 형태는 南方式 또는 變形南方式으로 無文土器를 동반하고 있다. 濟州島의 지석묘는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은 다음 다시 日本의 九州地方

과도 관계를 갖는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특히 北濟州郡에서 주로 발견되며 南濟州郡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그 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석묘사회는 북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지석묘의 수와 발견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文化財管理局; 1977, 宋錫範; 1979).

〈제주시〉

(1) 龍潭洞

용담 2동에서 모두 4개가 발견되었으며 濟州大學 構內와 근처에 있는 2기는 變形南方式 支石墓이고 나머지 2개는 南方式이다. 제주도의 다른 지석묘도 그렇지만 거의 全部가 熔岩(玄武岩)으로 된 岩石을 材料로 使用하고 있다. 4개중 1개는 蓋石이 파손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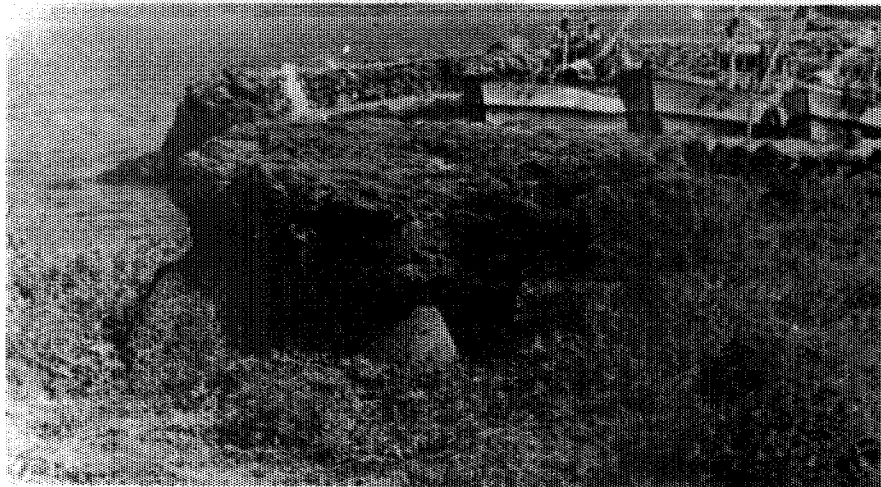
〈圖 8〉 용담동 지석묘

## (2) 吾羅洞

果樹園 근처에 있는 5基를 포함하여 吾羅洞에서 발견된 支石墓의 총 數는 24基인데 玄武岩으로 만들어진 이들은 南方式 支石墓의 形態를 주로 보여 주고 있다. 제주시의 확장과 개발로, 보고된 24基 중 5基가 파괴되어 없어졌으며 支石 등이 파손된 지석묘가 6基가 되어 保存問題에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宋錫範; 1979:20).

## (3) 三陽洞

佛塔寺 경내에 玄武岩으로 된 變形支石墓 3基가 있고 三陽國民學校 西南과 南쪽에 5基가 있는데 이들도 支石이 없는 變形支石墓로 報告되어 있다(文化財 管理局; 1977:436). 그 밖에 三陽洞 526번지 일대에 약 20여기의 지석묘가 있다고 하였으며 形態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삼양동 529번지에는 南方式 支石墓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三陽洞에는 變形南方式 支石墓와 南方式 支石墓가 함께 存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宋錫範氏는 三陽洞의 것은 5基만을 報告하고 있으며 이 중에 1개는 없어졌고 3개는 훼손되었으며 1개만이 온 전하다고 하였다(宋錫範; 1979:20).



〈圖 9〉 삼양동 지석묘

## (4) 外都洞

이곳에는 1基의 支石墓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 〈北濟州郡 涯月邑〉

## (1) 下貴里

貴日中學校 正門 東쪽 말에 있으며 南方式 支石墓의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또 부근에는 동일 形態의 支石墓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規模가 작다고 한다. 총 4개가 있으나 현재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宋錫範 1979:20).

## (2) 光令里

이곳의 代表的인 支石墓는 濟州市 外都洞과 애월읍 光令里의 境界線上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支石 사이의 一部를 돌로 막아 地석묘의 內部를 가진 흔적이 보이는 독특한 形態이다. 이곳에 있는 支石墓의 形態와 九州地方의 地석묘 형태가 비슷하다고 한다(宋錫範; 1979:22). 또 支石墓의 數는 淸羅洞에서 발견된 것처럼 상당수에 이르며 모두 20基가 光令里에 分布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송석범씨는 20基 중에서 개석이 있는 완전한 상태의 것이 11개, 훼손된 것이 6개, 완전히 없어진 것이 3개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 (3) 貴日里

涯月邑 貴日里 1904번지에 支石墓가 있다고만 보고되어 있을 뿐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具體的인 調査를 요하는 곳이다.

## (4) 郭支里

郭支里 본마을에서 北쪽에 위치해 있는 표고 100m 가량의 野山 근처에 일구어 놓은 밭 사이에 4基의 玄武岩으로 된 일종의 變形南方式 支石墓가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崔夢龍;1967:254~256).

(5) 翰林邑 歸德里

이곳에 支石墓 1基가 있다고만 보고되었을 뿐 지석묘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現在 남아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南濟州郡 大靜邑〉

(1) 日果里, 東日里, 下摹里

南濟州郡에서도 支石墓가 발견되고 있으나 그 數는 北濟州郡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日果里, 東日里, 下摹里에서 모두 6基의 支石墓가 보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宋錫範;1979:20).

2) 無文土器遺蹟

지금까지 濟州島에서는 모두 7군데의 無文土器遺蹟이 보고되어 있으나 郭支遺蹟만이 제주대학 박물관에서 간략하게 發掘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제주도 全域에 걸쳐 支石墓가 발견되기 때문에 支石墓와 관계있는 無文土器人의 生活住居址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유적의 수는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확실하며 內陸 쪽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은 큰 것이다. 그러나 無文土器文化의 性格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發掘을 통해 具體的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새로 발견되었거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구된 無文土器遺蹟들을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濟州市 內都洞

1977년 4월 5일 매장문화재 신고에 의해 제주시 내도동에서 出土된 無文土器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일단 無文土器와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반출유물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李白圭;1979:142).

(2)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貝塚

1973년 6월 日本의 江阪輝彌 教授와 宋錫範氏가 함께 이 遺蹟을 發見하고 遺蹟의 發見경위와 出土遺物의 種類를 간단하게 보고한 적이 있다(宋錫範1973). 筆者는 빌레못동굴 發掘時 이곳을 답사하였으며 그후 수차 재답사하였다.

가. 遺蹟의 위치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에 있으며 靑州國民학교 부근 밭 一帶가 遺蹟이다. 一周道路에서 內陸쪽으로 20 m 들어가는 밭 근처에서부터 넓게 퍼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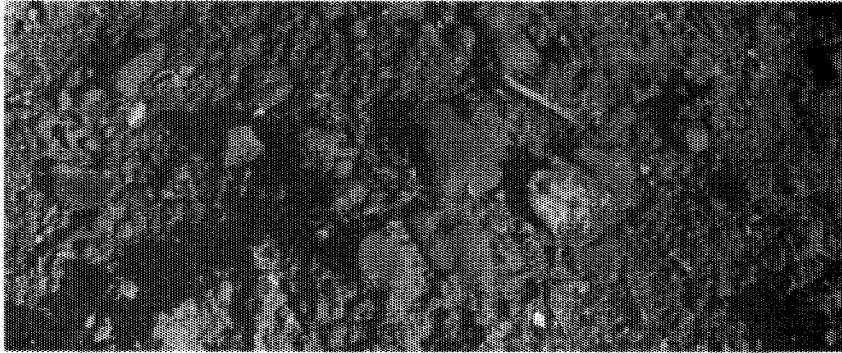


<圖 10> 郭支遺蹟

나. 遺蹟의 狀態

현재 유적은 밭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유적의 규모는 100 × 150 m로 매우 넓게 퍼져 있다. 地表에는 많은 無文土器片과 때에 따라서는 金海式 또는 新羅土器片이 흩어져 있고 動物의 骨片, 貝殼 등이 함께 발견된다. 도로의 側面에

는 이 遺蹟의 堆積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유물 포함층이 露出되어 있다. 1979년말 濟州大學 博物館에서 發掘하여 이곳에서 밝혀진 層位는 4개로 다음과 같다(李白圭; 1979:150).



〈圖 11〉 遺物露出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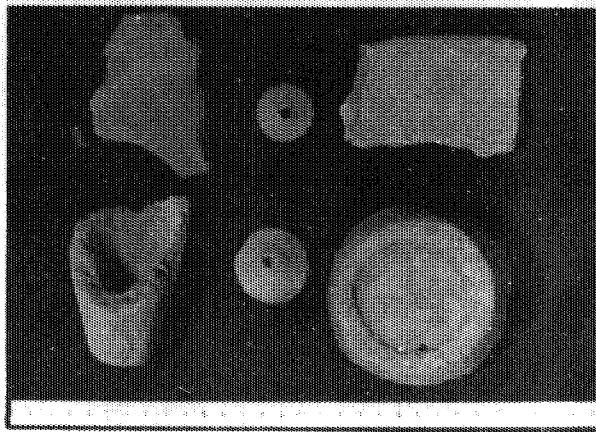
제 1 층 : 表土 (20~30cm).

제 2 층 : 黑褐色의 부식토가 貝殼層에 混合된 混土貝層 (40~55cm).

제 3 층 : 貝殼이 거의 없는 黑褐色土層 (50~60cm). 下部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얼어진다.

제 4 층 : 黃褐色土層 (40cm 内外).

다. 遺物의 種類



〈圖 12〉 地表採集土器

土器는 器壁이 두껍고 胎土가 굵은 石粒으로 된 無文土器가 主要를 이루고 있으나 硬質의 金海式土器도 눈에 띈다. 그리고 歷史時代의 기와편도 간혹 採集되고 있다. 石器로는 드물게 磨製인 끌 정도가 발견되었고 자갈돌로 된 剝片은 많은



편이다. 이상의 유물은 地表調査時 수집된 종류이고 제주대학 박물관에서 광지유적을 발굴할 때 층위별로 출토된 유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李白圭:1979:150).

제 1 층 : 壺形無文土器인 外反口緣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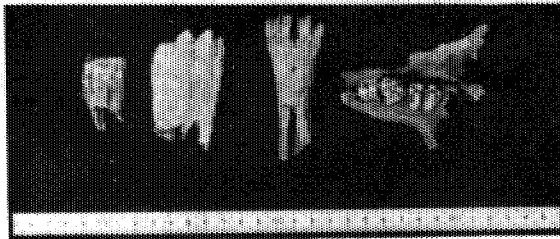
제 2 층 : 外反口緣土器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그밖에 內反口緣土器, 把手付土器, Cup 形土器, 土器平鏡, 紡繩車(주관알 形態等)와 骨角製刀子柄, 鐵刀, 灰青色·灰白色硬質土器가 몇편 出土되었다.

제 3 층 : 2 층에서 出土되는 종류와 같으나 유물의 出土量이 적음.

제 4 층 : 直立口緣土器, 孔列土器, 口脣部刻目土器, 口脣部刻目長頸壺, 黑色磨研土器, 口脣部刻目 빗질土器, 粘土帶土器가 出土되었다.

이들 유물을 조사한 李白圭 教授는 제 1, 제 2, 제 3 층의 유물들을 제주도 無文土器 後期 즉 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編年하여 下限을 紀元前後로 보고 있으며 그 上限은 조금 더 빠른 시기로 올려 보고 있다. 그리고 제 4 층은 純粹無文土器時代로 보고 그 上限을 B.C. 4 세기 後半으로 編年하였으며 제주도의 無文土器前期로 區分하였다. 이어서 無文土器前期에 제주도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變形支石墓가 存在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李圭白:1979:154~155). 郭支貝塚發掘報告書가 아직 나오지 않아 결론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이상 言及한 내용들이 骨格을 이루고 장차 C<sub>14</sub> dating 등 보다 科學的인 編年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筆者가 실시한 地表調査에서 動物뼈들이 여러 점 採集되었는데 그 종류는 말, 소, 사슴, 돼지 등으로 區分된다. 그러므로 이때의 소나 말은 이미 家畜化되었다고 보며 이들을 食用으로 活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自然遺物로서 貝類가 수집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전복科(Haliatidae), 소라科(Turberidae), 뿔소라科(Muricidae), 밤고둥科(Trochidae)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



〈圖 13〉 광지동 동물뼈. 왼쪽으로부터 말, 소의 어금니, 사슴의 발뼈, 돼지 어금니

貝類가 수집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전복科(Haliatidae), 소라科(Turberidae), 뿔소라科(Muricidae), 밤고둥科(Trochidae)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현재 광지유적에서 바닷가까지는 100 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옛날 無文土器人들은 해산물을 많이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이 지역의 無文土器人들은 本土의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에 해당되는 때에 한반도로부터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특히 慶南海岸地方의 유물들과 유사한 점이 많아 全羅道보다는 이곳에서 文化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 北濟州郡 涯月邑 錦城里 貝塚

이 유적은 옆의 郭支貝塚와 同一한 유적이지만 行政區域만 다르기 때문에 錦城里貝塚으로 불리운다.

### (4) 北濟州郡 翰林邑 狹才里 洞窟

이 遺蹟은 1975년 現地踏査時 처음으로 筆者가 發見한 유적으로 洞窟住居址에 해당한다.

#### 가. 유적의 위치



〈圖 14〉 狹才洞窟入口

北濟州郡 翰林邑 狹才리에 있으며 협재 해수욕장 맞은편 雙龍窟入口로 가는 길의 왼쪽 지대 즉 해수욕장으로 부터 약 500 m 떨어진 곳에 無名窟들이 있으며 이 중 1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入口가 작게 뚫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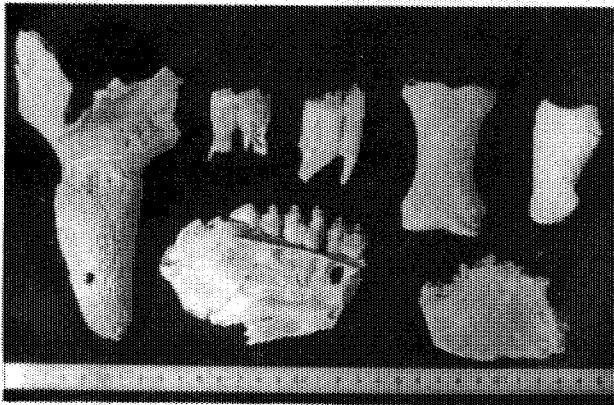
#### 나. 遺蹟의 狀態

유적 근처에 굴 入口가 6개 정도 있지만 모두 막혀 있다. 1개가 현재 內部로 통하나 落石이 많고 좁아 유물이 있는 넓은 장소까지 가려면 매우 힘들다.

土器片들이 發見되는 일종의 큰 Hall 까지 도달하려면 現入口로부터 약 100 m 는 들어가야 한다. Hall 못 미쳐 25 m 되는 지점부터는 소 또는 말의 뼈片和 치아들이 흩어져서 石灰質로 굳어진 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中央 Hall 의 落磬石이 크게 떨어진 部分에는 역시 無文土器片和 貝殼이 발견된다. Hall 의 길이는 14.4 m, 폭은 10 m이며 높이가 3~5 m 정도이다.

#### 다. 遺物의 種類

여기서는 주로 動物뼈들이 많이 발견되며 소, 말 이외에 山羊의 뼈가 出土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土器는 轉轆를 利用한 無文土器片이 發見되며 器壁이 두꺼운 無文土器片도 나타나고 있다. 石器로는 거치른 剝片이 보일 뿐이다. 貝類로는 전복科(Haliatidae), 백합科(Veneridae) 등이 보인다. 현재의 洞窟 遺蹟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先史人의 住居址로 제주도에서 새로 發見된



〈圖 15〉 狹才窟의 동물뼈. 뒷줄 왼쪽으로부터 산양뼈, 말, 소의 어금니, 말, 소의 발뼈. 아랫줄 왼쪽은 소의 턱뼈. 그 옆은 石灰질로 덮인 無文土器

유적이다. 出土遺蹟物로 보아 初期鐵器에서 青銅器時代에 속하는 狹才窟은 특히 많은 소와 말의 뼈가 발견되어 郭支, 北村유적과 함께 濟州島에서 언제 소나 말 등이 가축으로 利用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 (5) 北濟州郡 翰林邑 月令里洞窟

이 유적도 1975년 답사 때 새로 발견된 洞窟유적이다.

#### 가. 遺蹟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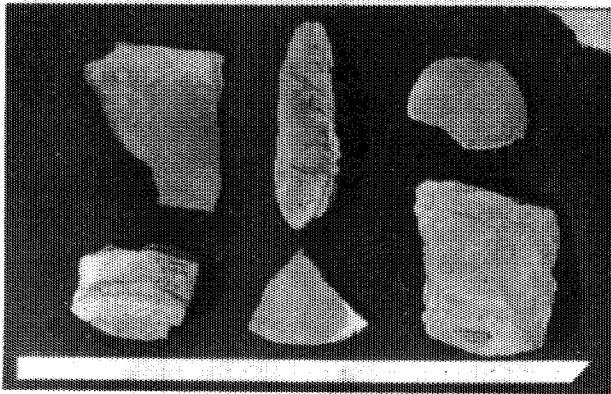


〈圖 16〉 月令里 洞窟遺蹟

#### 나. 遺蹟의 狀態

熔岩洞窟의天井이 함몰되어 이곳에 自然的인 洞窟入口가 생긴 天然 동굴이지만 遺物이 發見되는 범위는 入口로부터 20 m 내외의 동굴 안쪽이다. 동굴入口의 폭은 약 13 m, 높이 5 m 정도이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동굴入口로부터 안으로 15 m 되는 지점에 큰 落磐石들이 보이고 근처에 無文土器片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入口 근처에는 骨片, 貝殼, 土器片이 발견되며 낙반석 부근에는 불 댄 자리인 爐址가 2개 놓여 있다.

#### 다. 遺物의 種類



〈圖 17〉 月令洞窟出土 土器石器. 뒷줄 왼쪽부터 孔列文土器, 石器. 그 외는 無文土器이다.

北濟州郡 翰林邑 月令里에 있으며 一名 '한들굴' 이라고도 부르는데 유적지로 가려면 金陵里에서 造水쪽으로 가는 道路로 약 1.2 km 가량 가면 도로 오른쪽에 位置하고 있는 洞窟이 나타난다.

器壁이 두꺼운 것과 얇은 無文土器가 發見되었으며 얇은 土器 중에는 口緣部에 돌아가며 등근점을 한개씩 장식한 孔列文土器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외에 金海式 硬質土器도 여러 片 出土되어 계속해서 사람이 살았던 흔

적을 알 수 있었으며 石器로는 玄武岩製의 剝片이 몇개 채집되었다. 動物界로는 사슴, 소 등의 種類가 나타나며 貝類는 전복科, 빨소라科, 밭고둥科(Trochidae) 등이 다른 유적과 큰 차이없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月舍遺蹟의 文化的 性格은 채집된 유물로 보아 역시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에 속한다고 보며 아직도 原始的인 수렵, 채취생활을 하던 洞窟住居址로 해석할 수 있다.

(6)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遺蹟

이 유적은 無文土器片들이 흩어져 있는 散布地로서 言及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遺物의 一部를 서울大 博物館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白圭 1979:143).

(7)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遺蹟

이 유적은 文基善教授(1973:132~135)가 여기서 채집한 土器를 中心으로 遺蹟의 性格을 論한 바 있으나 筆者는 現지를 답사하고 많은 차이점을 發見했기 때문에 다시 이를 整理하여 論하고자 한다.

가. 遺蹟의 位置



<圖 18> 北村遺蹟

北村里의 海안으로 부터는 약 500 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촌마을을 지나는 一周道路邊에서는 대략 250 m 가량 內륙에 위치하고 있다. 海안이 가까워 海産物을 채취하며 生活하기에는 아주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다.

나. 遺蹟의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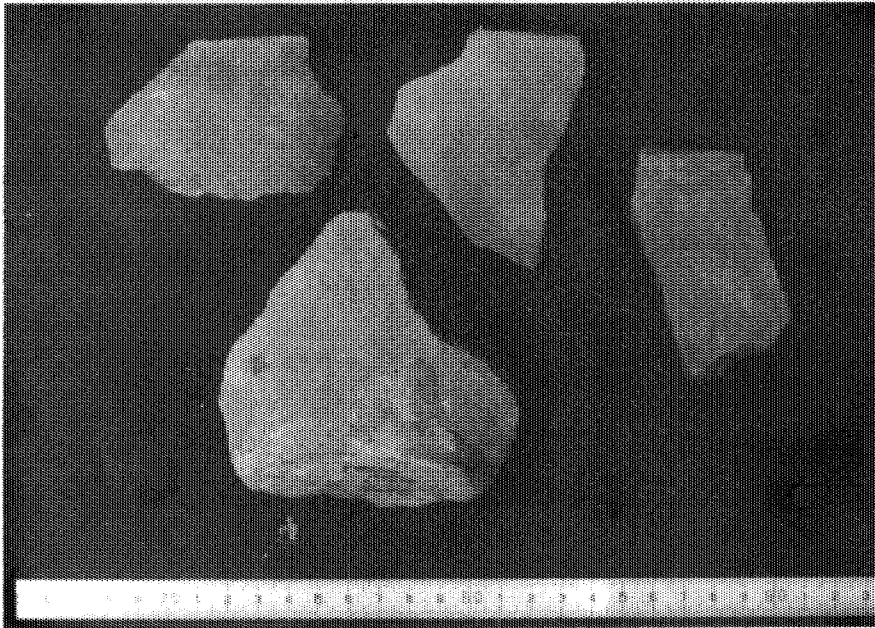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명칭이 소위 '고두기언덕'이라고 불리우고 있

으나 실제로는 거대한 陷沒地로서 長직경이 약 50 m나 되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곳의 깊이는 약 5 m이고 南쪽을 향한 벽면중 一種의 Rock Shelter의 모양을 한 장소에 遺物層이 堆積되어 있다. 따라서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소위 바위은거지 遺蹟이라고 하겠다. 유물퇴적층은 1 m 이상 되고 表面에서는 無文土器를 비롯하여 각종 土器片, 動物뼈, 貝殼 등이 흩어져 있다.

#### 다. 遺物의 種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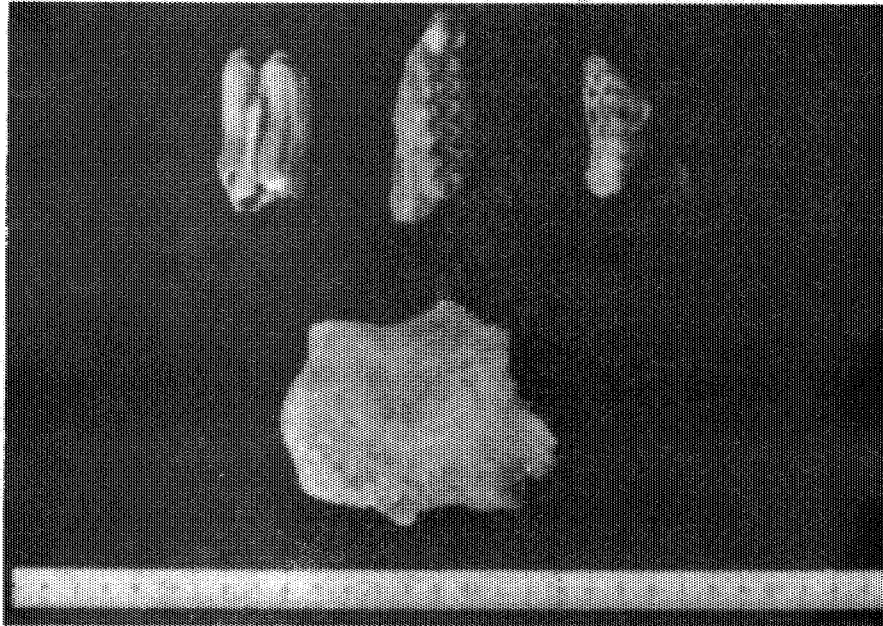
주로 器壁이 두터운 無文土器를 中心으로 大部分은 無文土器系統의 器壁이 얇은 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土器가 섞여 있다. 文基善教授가 신석기시대의 櫛文土器로 설명한 것들은 初期鐵器 내지 靑銅器時代에 속하는 無文土器系統의 土器들인 것이다. 이들은 거의 轆轤를 利用해서 만든 土器이며 一部 土器 表面에 나타난 文樣은 즐문土器와 無關한 것들로 金海式土器에 나타나는 것 같은 것도 있다. 石器類는 드물어 剝片이 몇개 수집되었을 뿐이다.

動物뼈로서는 산돼지와 소 등이 발견되어 수렵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마



〈圖 19〉 北村 土器

다에서 채취한 貝類로는 전복(Nordotis discus), 오분자기(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등의 전복科(Halistidae)와 소라科(Turbinidae), 삿갓조개科(Patellidae), 두드럭고둥(Taisbronni), 백합科(Vernerirae) 등이 있으며 食用으로 貝類를 많이 利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考古學的 資料들을 검토해 보면 北村유적은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에 속하는 일종의 바위은거지 住居址로서 해변가에 위치하여 해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또 수렵도 했던 生活遺蹟址이다.



〈圖 20〉 北村出土 動物齒와 人骨. 위줄 왼쪽부터 소, 사슴, 산 돼지의 치아. 아랫줄은 사람의 頭蓋骨片

### 3) 기타 遺蹟

여기서는 支石墓와 無文土器遺蹟들을 제외하고 따로 고립되어 發見 또는 수집된 遺物들, 즉 磨製石斧, 土器 등을 다루며 지금까지 발견된 장소와 유물의 종류들을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濟州市 一徒洞과 二徒洞에서 각각 磨製石斧 1點씩 發見되었으며 前者는 濟州大學 博物館에서, 後者는 國立中央博物館에서 보관하고 있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와 水山里에서도 磨製石斧 1점씩 出土되었으며 2점 모두 濟州大學 博物館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 北濟州郡 輪

林邑 上大里와 舊左邑 月汀里에서도 마제석부가 1점씩 수집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月汀里 石斧는 제주대학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 장문화재 신고로 舊左邑 細花里에서 異形石器가出土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濟州道廳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편 南濟州郡 大靜邑에서도 여러 점의 石器와 土器(完形)가 발견되어 매 장문화재로 신고되어 있다. 武陵里, 日果里, 新川里, 蘭山里 등지에선 각각 磨製石斧들이 수집되었고 西歸里와 溫平里에서 각각 小形磨製石劍과 無文土器 完形이 발견되어 이들 大部分을 제주도청에서 보관하고 있다(李白圭; 1979:143). 이러한 遺物들이 따로 1개씩 우연히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유물이出土된 지역은 이와 관련된 支石墓나 無文土器遺蹟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여 보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Ⅲ. 展望 및 結語

濟州島研究에 있어서 考古學的인 研究는 매우 重要한 分野의 하나이다. 濟州島에서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당시의 自然環境과 生態界는 오늘날과 어느 정도 달랐으며 變化해 왔는가, 또 先史時代의 文化는 주위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發展 내지 變化하여 歷史時代와 연결이 되는가, 現在의 濟州島民의 祖上은 누구인가 등 文獻史學에서 다룰 수 없는 先史時代의 모든 問題들을 해결할 수 있는 分野가 바로 考古學分野인 까닭이다. 考古學은 실제로 遺蹟과 遺物을 찾아내고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先史人과 관련된 모든 생활文化, 환경까지 밝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濟州島의 진정한 文化的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考古學的인 研究活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28年 山地港에서 우연히 발견된 前漢代의 銅鏡, 五銖錢, 王莽時代의 화폐인 貨泉, 貨布 등을 除外하고 濟州島에서 考古學的인 調查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24년전의 일이다. 이러한 年輪은 韓國考古學의 斷面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濟州島에서 考古學的인 研究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를 또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 그동안 濟州島의 考古學에 關心있는 분이 몇 분 있어서 舊石器時代부터 新石器(아직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다) 靑銅器 내지 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遺蹟과 遺物들이 꾸준히 발견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 중에서 現在 發掘作業을 통해 그 文化的 性格이 具體的으로 알려진 것은 빌레못동굴과 광지 패총 정도이다. 그러므로 구석기유적을 비롯하여 支石墓와 無文土器遺蹟, 遺物出土地 등을 합하면 지금까지 29개의 遺蹟이 보고되어 있다. 그중에 2군데만 제대로 發掘調査가 이루어진 셈이다. 現在 支石墓는 모두 63개가 報告된 것 중에서 이미 9기가 없어졌으며 20기는 훼손이 되었고 온전한 것은 34기라고 하였다(宋錫範; 1979). 그러나 지금까지 支石墓가 發掘 調査되어 具體的인 文化內容을 알 수 있는 것은 全無狀態인 채 하루하루 盜掘되거나 파괴되어 가는 모양으로 保存問題가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濟州島를 考古學的으로 研究하는 데 있어서 그 展望은 밝다고 생각되는데 그 까닭은 아직도 具體的으로 發掘 調査해야 할 유적과 유물이 거의 다이고 또 새로 찾아내야 할 유적 유물도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원래 많은 것은 아니지만 天池淵遺蹟과 같은 것이 더 발견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표조사가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은 후속조치로서 문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發掘調査가 뒤따라야 한다. 新石器時代의 文化로 아직까지 櫛文土器遺蹟이 확실하게 발견된 적은 없으나 현재까지 제주도의 先史文化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아서 장차 구석기시대와 청동기 내지 초기 철기시대를 이어줄 수 있는 이 段階의 文化가 꼭 發見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미 그 可能性을 보여준 櫛文土器파편에 대한 言及은 前述한 바와 같다.

청동기시대 내지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遺物과 遺蹟은 濟州島에서 無文土器와 支石墓로서 代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數도 제일 많아 앞으로 많이 調査研究해야 할 對象이다.

全般的으로 濟州島에서의 考古學的 研究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軌道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차츰 이 分野 研究人員이 증가하면 해결될 것이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遺蹟 遺物의 보호이다. 道當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濟州島의 觀光開發로 알게 모르게 이러한 遺蹟 遺物들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더욱 이러한 유적 유물 보호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적들을 학술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文化內容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復元을 시켜 觀光開發과 산 教育場所로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더 긴 안목에서 볼 때 이 分野의 專門家가 濟州島에서 나와야 하며 그러기 전까지는 關係學者들과 協助해 가면서 上述한 重要事業들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 引用文獻

-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_\_\_\_\_ 1976 〈濟州島の 先史文化와 住民〉《耽羅》10
- 金宗業 外, 1983 〈解放後 濟州研究概觀(II)〉《耽羅文化》2:285 ~ 328
- 金哲竣, 1959 〈濟州道 支石墓 調査報告〉《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9》
- 文基善, 1973 〈濟州道 無文土器文化研究〉《濟州大論文集》5
- 文化財管理局, 1977 〈濟州道篇〉《文化遺蹟總覽》下卷
- 夫宗休, 1973 〈韓國 新·舊石器時代의 穴居遺蹟에 對하여 : 濟州島빌레못굴·한들굴〉  
 《교육제주》24
- 宋錫範, 1964 〈제주도의 고인돌 小考〉《제주도》13 제주도청  
 \_\_\_\_\_ 1966 〈濟州道 Dolmen, A地區의 支石墓〉《연수》濟州道教研  
 \_\_\_\_\_ 1973 〈곽지패총에 對한 小考—곽지패총을 發見하고〉《교육제주》23濟州道教委  
 \_\_\_\_\_ 1979 〈濟州島の支石墓〉《考古學ジャーナル》161:20 ~ 22
- 李白圭, 1979 〈濟州島 無文土器에 對한 一考察—濟州島の 考古學的 調査研究 I〉《考古學》五·六合輯 韓國考古學會
- 禹樂基, 1965 《濟州道》大韓地誌 1, 大韓地理研究所
- 鄭永和, 1974 〈舊石器時代穴居遺蹟에 對하여〉《韓國文化人類學》6:151 ~ 156  
 \_\_\_\_\_ 1977 〈濟州島の 考古學的 調査—新發見 遺蹟을 中心으로〉《韓國文化人類學》  
 9:131 ~ 136  
 \_\_\_\_\_ 1978 〈舊石器의 名稱 및 形態分類(II)〉《嶺南史學》7·8:105 ~ 173
- 崔夢龍, 1967 〈郭支里 支石墓 踏查報告〉《서울大文理大學報》14:253 ~ 256
- 한국동굴협회, 1971 《한국의 동굴》서울 백민사 문화재 관리국
-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 綜鑑〉1, 養德社
- Brézillon, M., 1969 *Dictionnaire de la Préhistoire*, Paris, Larousse
- Bonifay, M.F., 1966 Les Canivores, en *Faune et Flores Préhistoriques*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Lavocat, R. Paris, Boubée et cie,  
 pp.337 ~ 396
- Bordes, F., 1947 Etude Comparative des Différentes Techniques de Taille du Silex  
 et des Roches Dures, *L'Anthropologie*, t.51, p.18  
 \_\_\_\_\_ 1961 *Typologie du Paléolithique Ancien et Moyen*, Bordeaux, éd.  
 Délmás, Vol.1, p. 85, fig.1, et Atlas 1, pl.108

- Bordes, F., 1968 *The Old Stone Age*, London and New York, World University Library, p.163 과 p.192
- Bouchud, J., 1966 Les Cervidés, en *Faune et Flores Préhistoriques*,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Lavocat, R. Paris, Boubée et cie, pp.244~278
- Chung, Y.W., 1972 *L'Outillage de Type Archaïque dans le Paléolithique Supérieur du Sud-Ouest Français*, THESE de Doctorat de L'Université de Bordeaux, pp.7~16
- Elisseeff, V., 1968 Le Paléolithique de l'Asie Nord-Orientale, *L'Homme avant l'Écriture*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Varagnac, A. Paris, Colin, pp.125~155
- Im, H.J. and Pearson, R., 1970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on Cheju Island, Korea,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 Ethnological Sciences*
- Kurtén, B., 1968 *Pleistocene Mammals of Europe*, Chicago, pp.118~166
- Skipp, V., 1967 *Out of the Ancient World*, Penguin Books, pp.11~12
- Sonneville-Bordes, D.de, 1967 *La Préhistoire Moderne*, Périgueux, Pierre Fanlac, p.8
- Whitten, D.G.A. and Brooks, J.R.V., 1972 *The Penguin Dictionary of Geology*, Penguin Reference Books